

공청회 공지
HOME 미국 구조 계획 편당에 힘을 주고 해당 계획의 배분 계획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
회계연도 2021-22 년의 연간 조치 계획에 대한 중대 개정
오렌지 카운티 - 오렌지 카운티 커뮤니티 자원

오렌지 카운티의 관리 위원회가 회계 연도 2021-22 년의 연간 조치 계획(AAP)에 HOME 미국 구조 계획(HOME-ARP) 기금을 추가하여 해당 계획의 배분 계획을 가능케 할 중대한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계획했다는 공지를 알려드리는 바입니다. 해당 공청회의 목적은 대중의 의견을 듣고 해당 주제에 대한 문서의 채택을 얻어내는 것입니다.

공청회 진행 날짜: 2022 년 10 월 4 일 화요일
공청회 진행 시간: 오전 9 시 30 분 (시간상 관계로 조금 늦어질 수 있음)
공청회 진행 장소: 카운티 행정부 북부 (CAN)
위원회 공청실, 92701, 캘리포니아
산타 아나, 씨빅 센터 드라이브
400 W. 1 층

ADA 숙소나 통역 서비스와 같은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회 서기가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. 해당 신청을 하시려면 회의가 있기 최소 72 시간 전에 714-834-2206 으로 위원회 서비스 부서에 연락해주시십시오.

미국 구조 계획(ARP)은 2021년 3월 11일에 채택되었으며 HOME 미국 구조 계획(HOME-ARP)로 50억 달러에 달하는 기금이 해당 계획에 모였습니다. 2021년 4월 8일 주택 도시 개발부(HUD)는 HOME-ARP 기금을 HOME 포물러를 사용하는 651명의 피수여자에게 배분했습니다. 오렌지 카운티의 도시 카운티는 5,017,613 달러에 달하는HOME-ARP 기금을 배분 받았습니다. HOME-ARP 기금은 최대 34채의 영구 지지 주택 건설에 사용될 것입니다. HOME-ARP 배분 계획 채택을 포함한 중대 개정안은 주택 도시 개발부로 하여금 이러한 기금을 회계 연도 2021-22년의 연간 조치 계획에 추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.

중요한 초대 사항: 회계 연도 2021-22 년의 연간 조치 계획에 대한 해당 중대 개정안 및 HOME-ARP 배분 계획에 대해 대중이 문제점 및/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**2022 년 8 월 26 일부터 2022 년 9 월 26 일까지**의 30 일 간의 검토 기간을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지해드리는 바입니다. 해당 중대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 자신의 의견을 서면이나 관리 위원회의 앞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해당 30 일 검토 및 의견 제출 기간에는 주택 커뮤니티 개발(Housing & Community Development) 웹사이트인 <https://www.ochcd.org/community-development> 에서 회계 연도 2021-22 년도 연간 조치 계획에 대한 중대 개정안 및 HOME-ARP 배분 계획으로의 사이트 링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 또한 공시는 공시 링크 www.ochcd.org/resources/public-notice 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양식에서 문서를 찾아보실 수 있고 신청에 따라 언어적 도움도 드립니다. 신청에 따라 92705, 캘리포니아 산타 안나 St Andrew Place 1501 E.에 위치한 주택 커뮤니티 개발부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(오전 8 시부터 오후 5 시)까지의 보통 업무 시간에 사본을 만들어드립니다. 아래의 전화번호로 사전에 전화해주시십시오.

적어주신 의견은 2022 년 9 월 26 일까지 소인을 찍어 92705, 캘리포니아 산타 안나 St Andrew Place 1501 E.에 위치한 주택 커뮤니티 개발부로 부쳐야 합니다. 주의: Craig Fee 씨 또는 이메일 주소인 craig.fee@occr.ocgov.com 으로 보내십시오. 공청회 계획 날짜 전에 받은 모든 의견을 논의할 것입니다. 더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Craig Fee 씨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(714) 480-2996 으로 연락해주시십시오.

매니저 Craig Fee
커뮤니티 개발부

본 공지는 다음의 신문사에서 발행 및 번역되었습니다:

2022 년 8 월 26 일 - 오렌지 카운티 등기부 및 Nguoi Viet 및 La Opinion